



좋은 친구

FRIENDS

2023. 1.

Vol.014

사단법인 프렌즈는 2006년 12월에 오륜교회의 뜻있는 분들이 심은 소중한 씨앗으로 시작되어 현재의 국제구호개발 NGO로 성장하였습니다. 외교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며, 현재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17개국 28개 해외사업장에서 아동결연, 교육, 직업훈련, 지역개발, 보건의료, 긴급구호 등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 복지사업과 취약계층지원사업, 유학생장학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표지 이야기



인도네시아 봉제기술교육 5기 수료생들! 기술뿐 아니라, 자신감과 가족같은 공동체까지 얻게 되어 더 기쁘다는 인사를 전했는데, 환한 미소와 당당한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차드 마하나임 친구들의 방과후수업 현장~ 처음 만져보는 색칠 도구를 잡고, 설레임이 가득한 눈망울로 다른 친구에게 선물해줄 나만의 그림을 완성해 갑니다.

반기간 <좋은친구 FRIENDS> vol.014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발행정보 제14호
발행일 2023년 1월 31일
발행인 김은호
기획편집 (사)프렌즈 대외협력팀
주소 서울시 강동구 풍성로 189, 금성빌딩 2층
전화 02-483-5007
E-MAIL friends@hifriends.or.kr
Facebook hifriends153
검색 '사단법인프렌즈'

사단법인 프렌즈 이사장
김은호(오륜교회 담임목사)
이사
김명진(크리스탈치과 원장),
김정섭(주식회사 토비아스 이사),
신현수(코모키이비인후과 원장),
윤승철(시카고치과 원장)
감사
마철현(세무법인 민화 대표 세무사)
*이사장 이하 가나다 순

2022년 7월 1일~ 12월 31일 신규 후원자분들입니다.

개인 김혜자 민병윤 백시현 서재철 신갑호 여진아 유세영 유연숙 유혜정 윤승경 이시진 이택우 임성현 임종덕 장백은 정선미 조인성 조현희 최동례 최서후 최정은 허경란 황윤진

단체 두레줄기학교요셉반 빛과소금교회유년부 알만컴퍼니주식회사 풍선조종사 (사)꿈이있는미래교육공동체

프렌즈의 가족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CONTENTS

- 04 인사말
김은호 (사)프렌즈 이사장
- 05 해외사업 '하나'
Bravo, My Life! Bravo, My Friends!
- 인도네시아 말랑의 직업훈련 이야기
- 10 해외사업 '둘'
기적으로 가득한 차드의
2023년을 소망하며
- 14 해외사업 '셋'
변화와 성장으로 희망을 채워가는
프런릿 학교
- 16 특별기획
후원자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 프렌즈 후원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분석 및 적용점
- 20 후원자스토리
생명의 물을 나누는 사람들
- 안암제일교회 후원 스토리
- 22 프렌즈 News
2022 프렌즈 하반기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났느니라

- 잠언 17:17



안녕하세요, 프렌즈 이사장 김은호입니다.
희망찬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걸어온 길과 새로운 길이 만나는 '새해'는
언제나 기대와 설렘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다시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가슴에 빛을 비춥니다.

'프렌즈' 역시 누군가의 가슴에 빛을 비추는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가슴 아픈 소리를 내는 이들을 위로하고, 아주 작은 기적을 노래하는 이들을 응원하는 것,
그렇게 친구 됨을 기뻐하는 것이 프렌즈의 존재가치이자 정체성이라 믿습니다.

올 한 해도 국경과 인종을 뛰어넘어 더 많은 친구가 더 밝은 희망을 꿈꾸도록,
뜨거운 가슴으로 진심을 다해 애쓰는 프렌즈가 되겠습니다.


프렌즈가 전하는 모든 기쁜 소식은 후원자님들이 계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희망의 길을 함께 걷는 친구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새해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희망을 노래하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프렌즈 이사장

가은호



Bravo, My Life! Bravo, My Friends!

- 인도네시아 말랑의 직업훈련 이야기 -

사단법인 프렌즈는 KT&G의 후원으로
지난 2021년 1월부터 인도네시아 말랑에
위치한 UKCW대학 부설 직업훈련센터
(이하 '센터')를 열고 지역 내 저소득층
여성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봉제 기술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2년간 기초반 203명, 심화반
72명 등 총 275명의 수료생을 배출했고,
현재 기초반 7기, 40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작된
사업이지만, 평균 입학 경쟁률 10대 1,
다른 지역에서도 교육 개설을 희망할 정도로
높은 호응과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 마무리 시점에서 그동안의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수료생들과 주요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보다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2단계 사업을 기획하고자 현지를 방문했습
니다. 12월 12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현지
방문 모니터링은 이 사업의 의미와 가치를
분명히 확인시켜 주었는데, 그 뜻깊은 현장
속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직업훈련의 요람, 말랑에 도착하다.

한국에서 자카르타까지 7시간 30분, 자카르타를 경유하고
다시 비행기로 1시간 30분을 이동해 교육 도시인 '말랑'에
도착했습니다. 말랑 공항에서 다시 차로 1시간을 달려 센터
가 있는 UKCW대학에 도착했습니다. 마침 심화반 수료생들
이 며칠 후 선보이게 될 수료식 패션쇼와 공연 리허설을 하
느라 분주했고, 곳곳에 밝은 웃음소리가 넘쳐났습니다. 평
별에서 몇 번이고 반복해 연습하는 수료생들의 열정이 학교
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수료생들과 가볍게 인사를 하
고, 시설을 둘러본 뒤, UKCW대학 요하네스 총장님과 반갑
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프렌즈가 직업훈련을 통해 지역사
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UKCW대학도 덕분에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며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바느질에서 인생을 건져 올린 그녀들

이어서 수료생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11명의 수료생을 만
나 그들이 어떻게 교육에 참여하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듣게 되었습니다.
바늘에 실을 넣는 것조차 해본 적이 없었던 초보 가정주부
가 옷을 만드는 전문가로 성장한 이야기, 오래전 아버지의
반대로 꿈을 포기했던 아이 엄마가 다시 꿈을 찾고 도전한
이야기, 반대하던 아버지가 이제는 딸의 가장 든든한 고객이
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19로 생계가
막막했던 여성이 시련을 딛고 어엿한 가정으로 가족을 책임
질 수 있게 된 이야기, 이혼 후 우울증으로 자살을 생각하다
가 센터에서 인생의 멘토를 만나 다시 살게 된 기적 같은 이
야기, 남편과의 사별로 겪게 된 정신적인 충격을 극복하고
당당히 패션 디자이너로 성장한 이야기 등 다양한 삶의 이
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직업훈련을 통해 기술만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를 얻고, 가족을 얻고, 우정을 얻고, 헌신을 배우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 때문이었을까요? 자신의 힘들었던 이야기도 솔직하고 당당하게 나눌 수 있는 그녀들의 모습이 얼마나 멋지던지, 그리고 살아가는 지금의 모습 또한 얼마나 아름다운지! 건강한 자존감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그녀들의 매력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에 빠져 들 수 있었습니다.



교육 시간의 모습

센터로 몰려드는 사람들

훈련생들은 대부분 교육 과정이 무료라는 것에 무척 놀라워합니다. 교육의 질이 낮거나 몇회만 무료고 나중에는 돈을 내게 될 것으로 짐작했지만, 모든 과정이 무료로 운영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탄탄한 이론 교육과 반복 실습, 교육 시간 후에도 일대일 지도를 통해 개별화된 맞춤 교육을 실시하다 보니 짧은 시간에도 우수한 실력을 갖추고 수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동안 직업교육을 받았던 조카가 센터에서 3개월 배운 이모에게 다시 배운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실제로 직업학교나 비싼 학원을 나와도 하지 못하는 일을 센터 수료생들이 해내는 것을 보고,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센터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가르치는 것보다 입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더 힘들다고 합니다. 봉제 기술이 아예 없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우선 선발하는데, 오래 기다리고도 선발되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이야기를 시작하려니 눈물이 멈추지 않네요. 저는 코로나19로 갑자기 남편을 잃었어요. 센터 등록 후 한 달 정도 되었을 때였죠. 처음 소식 듣고 충격으로 쓰러졌을 때 제일 먼저 달려온 분이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병원으로 데려가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셨죠. 매일 울며 슬픔에 빠져있었는데, 계속 연락해 힘내라고 위로해주고, 할 수 있다고 힘을 줘서 슬픔을 극복하고 끝까지 해낼 수 있었어요. 이곳이 없었다면 저는 주저앉아 인생을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남편을 떠나보냈지만, 여기서 새로운 가족을 얻었어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제가 옷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믿지 않았는데, 수료증을 보여주시니 바로 주문을 하더라고요. 교장 선생님 조언에 따라 제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주문받기 시작했고, 그렇게 점점 신뢰를 얻어 지금은 주문량이 많이 늘었어요. 남편이 죽고 생계가 막막했는데 이곳에서 배운 기술로 수입이 생겼고, 이제는 저와 제 아이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제 딸은 6살인데 저를 보면서 커서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대요. 제가 이곳에서 봉제 기술을 배운 것은 제 인생에 가장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후원해 주신 KT&G와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대시



“

저는 지금 옷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센터에서 기초반을 배우고 나서 단순히 옷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이 원하는 형태로 입기 좋게 직접 수선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심화반을 배우면서 이제는 손님에게 어울리는 옷감이나 패턴도 추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소문을 통해서 제 평판도 좋아지고 전문성을 갖추게 되니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자존감도 높아졌어요. 또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주문량이 많아질 때도 있는데, 그럴 때면 센터를 다닌 동기들과 함께 작업하기도 해요. 친구들은 수입과 봉제 기술 경험을 얻을 수 있어서 좋고, 저는 주문 기한을 맞춰 많은 양을 소화해서 좋고, 서로 윈윈할 수 있어서 좋아요. -리나



센터의 작은 거인, 수산 선생님

센터의 우수한 교육의 중심에는 '수산' 교장 선생님이 있습니다. 수산 선생님은 교육생들에게 엄마이자 언니, 인생의 멘토로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정규 과정 외에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도록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꼼꼼하게 지도해 주는 덕분에 훌륭한 수료생들이 배출될 수 있었습니다. 현재의 우수한 교육 과정도 그녀의 노력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수산 선생님은 신장 하나로 생활하고 있고, 때때로 투석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건강을 살펴야 하지만, 교육생들을 아낌없이 사랑하며 모든 열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 열정은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한 사람의 인생마저 새로운 인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

지금 제 인생은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다시 눈감을 때까지 항상 수강생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 힘이 허락하는 한, 이들 곁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유일한 바람은 이 과정이 중단없이 앞으로도 계속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들과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수산 교장 선생님



- 1 마스크를 만드는 모습
- 2 박스 포장으로 전달된 키트
- 3 고아원에 전달된 마스크



나에서 우리, 그리고 더 넓은 세상으로

코로나19가 한참 기승을 부리던 시기에 센터를 시작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준비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긴급지원키트'입니다. 훈련생들이 제작한 천 마스크와 생활필수품으로 구성된 키트 2,860개를 준비하고 취약계층을 위해 나누었는데, 이번 모니터링 중에 키트를 받은 기관과 마을의 책임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인드레아센터 훈련생들과 대상자 선정 및 배분을 맡았던 마을위원회, 현지인 직원, 그리고 키트를 받은 후원 가정들을 만났습니다.

직접 만든 마스크에 알차고 풍성한 물품도 인상적이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언급된 것은 키트가 '지역 주민들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은 후원 대상과 전달 방식을 후원자 중심으로 결정하고 통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후원은 마을 조직과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 인상 깊었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마을위원회가 주도하고,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실직가정 등을 선별하여 후원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에 물품이 전달된 것은 물론, 정성스런 메시지와 박스 포장(한국과 달리 인도네시아는 박스 포장이 일반화되어있지 않음)이라서 인격적으로 대우받고 존중받는 느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맡았던 현지인 직원도 꼭 필요한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기쁨과 보람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훈련생들 또한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처음 얻은 소득을 후원하거나,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려움을 나누고, 힘들 때 서로 의지가 되다 보니 센터는 어느덧 주민들의 든든한 지지와 사랑을 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집합 교육이 제한되는 상황 속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센터의 옹호자를 자처하고 나서는 바람에 교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수료생들 또한 스스로의 힘으로 튼튼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고, 서로의 언니, 동생, 엄마, 딸로서 하나 되어 건강한 구성원으로 역할을 하게 되니 지역사회는 어느새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변모해 가고 있었습니다.

꿈꾸던 시간, 런웨이에 서다

방문 모니터링 기간 중, 심화반의 수료식이자 패션쇼가 열리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행사는 말랑의 한 호텔에서 진행되었는데 모든 일이 수료생들에게는 처음 경험하는 일이고, 기적과도 같기에 정말 소중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72명의 수료생들은 각자가 직접 디자인하고 만든 옷을 입고 모델이자 패션 디자이너로서 무대에 올랐습니다. 수료생들이 선보인 의상들은 6개월의 교

육이 만들어낸 성과라고는 도무지 믿기 어려운 높은 수준의 작품들이었습니다. 총 6개의 컨셉(평상복, 정장, 파티복, 이브닝드레스, 나라별 전통의상, 웨딩드레스)로 제작된 의상들이 선을 보였고, 헤어, 메이크업 등 전문가와 봉사자들이 힘을 모아 한 명, 한 명을 모두 멋진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자신이 만든 작품의 모델이 된 수료생들은 화려하게 만들어진 그 어떤 의상보다 더욱 빛나고 아름다웠습니다.

수료식과 패션쇼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습니다. 수료생 가족과 말랑 지역 한국인 커뮤니티, UKCW대학 관계자, 지역 인사와 국회의원까지 참여했습니

다. 여러 언론사에서도 찾아와 취재 경쟁을 벌였습니다. 가족 대표로 즉석에서 마이크를 잡은 한 남성은 “아내가 열흘간 밤낮으로 옷을 만들기 위해 재봉틀 곁을 떠나지 않아서 너무 외로



축사 중인 이정민 사무국장과 함춘환 활동가

수료생들이 준비한 패션쇼와 즐거운 축제의 현장



웠는데 이제 드디어 돌아오게 되었다”고 말해 한바탕 웃음을 주기도 했습니다. 초대받은 가족들은 아내이자 엄마이며 또 딸인 수료생들의 모습을 자랑스러워하며 힘찬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이 사업은 이제 1단계를 마무리하고 2단계 사업을 시작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교육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수료 이후 경쟁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정 인원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교육 과정 개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지 책임자로서 헌신적으로 사업을 이끌어주신 함춘환 활동가를 비롯하여 이 사업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특별히 사업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후원해 주시고, 한결같은 신뢰와 격려를 보내주신 KT&G와 상사펀드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프렌즈 가족의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제가슴 속에 더 많은 감사의 말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게 허락된 모든 순간에 감사를 느낍니다.

이 코스를 통해 꿈을 꾸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가족 같은 공동체를 얻었어요. 제 인생에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Thanks!

얼굴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는 우리를 위해 이렇게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KT&G와 프렌즈에 감사드려요. 센터를 통해 평생의 멘토와 가족같은 동료들 얻게 된 것이 무엇보다 기쁘고 행복합니다.

기적으로 가득한 차드의 2023년을 소망하며

‘기적’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전에서는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알만한 크고 기이한 일은 아니더라도 어제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누군가의 작은 도움이 다른 의미의 기적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기적을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곳, 아프리카 차드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600명이나 물 없이 생활한다는 한 학교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방이 물로 가득한데, 정작 먹을 수 있는 물이 없습니다. 학교에 우물펌프를 마련해 주고 싶은데 많은 비로 찾아갈 수가 없어서 저희도 쪽배를 타기로 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웃음으로 잘 넘기는 이들과 함께 있어서 그런지 많은 비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도착한 학교의 작은 교실에는 아이들이 한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비록 쪽배를 타고 등학교를 하고 있었지만, 피곤한 것도 모르고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놀랍고 대견했습니다. 우물 없는 곳에 찾아가 우물을 해주고 오는 날이면 마음이 얼마나 기쁘지 모릅니다. 우물을 후원하신 분들은 자신의 후원으로 몇백 명의 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먹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실까요? 작은 정성으로 수백 명의 아이들이 씻고 마실 수 있게 되는 것은 ‘기적’입니다.

- 1 쪽배를 타고 가는 길
- 2 우물 후원 후 주민들과 함께!



우물 하나가 마을에 가져온 기적

60년 만에 폭우가 쏟아져 마을 여러 곳이 수해를 입었습니다. 아이러니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가재도구 몇 개로 사는 경우가 많다 보니 수해를 입어도 마치 크게 염려할 것이 없는 것처럼 초연한 모습으로 수해를 대하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우기철이면 반복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정부 차원의 근원적인 대책이나 이재민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 나름의 생존방식을 터득해 살아갑니다. 물이 닿지 않은 곳을 찾아 노숙하고, 그런대로 버티다가 물이 빠지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돌아가 생활하기도 합니다.

비가 많이 오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쪽배’입니다. 많은 비로 육지가 강처럼 변해버리면 어디선가 쪽배가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하고, 길이 끊겨 구하기 어려웠던 생필품을 파는 상인들이 나타납니다.

한 가정에 찾아온 작은 기적

이곳에서 만난 ‘마호메트’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어릴 때 주사를 잘못 맞아 왼쪽 다리가 7cm가량 짧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서 특수 신발을 만들어 가져올까 했는데, 차드 상황을 고려할 때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장하는 아이 발에 맞게 신발을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곳이 차드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아주 튼튼한 신발을 사고, 차드로 돌아와 아이 발에 맞게 굽을 붙여 편하게 걸을 수 있도록 맞춤 제작을 했습니다. 그 신발을 신고 다닌 아이는 평소보다 다리를 저는 각도가 확연히 줄어들었고, 허리 통증도 많이 줄어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뻐는지 모릅니다. 이후에도 아이의 발이 자랄 때마다 세 켤레 정도 새롭게 신발을 맞춰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 아버지가 저를 돕겠다고 찾아왔습니다. 부탁하지 않은 일이지만 먼저 나서서 해주었는데, 아이의 변화에 대해 고맙다는 표현을 이렇게 대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도움이지만, 아이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고, 가정에게도 기적을 선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적

이곳은 우기철인 6월 중순부터 9월까지 마치 하늘에서 물을 쏟아붓듯이 비가 오고 나면 한 방울의 비도 구경할 수 없는 50도 이상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우기가 시작되면 사실상 어딘가를 오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학도 시작됩니다. 약 3개월의 방학을 마치고 돌아온 아이들을 다시 만나는 순간,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컸는지 놀랐습니다. 아이들의 바지와 치마 길이가 짧아지고 변한 얼굴 때문에 자세히 봐야만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으니까요.

오랜만에 만나는 아이들은 “보고 싶었어요.” 하는 눈빛으로 악수를 청합니다. “잘 있었니?”라고 물으면 수줍어하며 다른 친구 뒤에 숨어버립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우기철에는 배가 고파 병들고 심지어 죽는 사람들이 많은데, 학교 아이들 모두 건강하게 잘 보내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학교는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신학기를 맞이했습니다. 길고 긴 우기를 잘 보내고 다시 마주한 아이들의 얼



다시 만난 아이들

굴을 보니 ‘기적’이라는 단어가 마음을 뭏뭏합니다.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다시 만날 수 있는 것, 이 또한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배울 수 있다는 기적

한국에서는 평범한 것들이지만, 차드로 온다면 별천지처럼 새로운 것들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아이들의 특기와 적성을 살릴 수 있는 ‘방과후수업’입니다. 프렌즈 후원으로 시작된 방과후수업에는 불어 2개반, 수학 2개반, 이 야기가 있는 미술반, 즐거운 스포츠반, 축구반, 전통악기를 다루는 탐탐반이 있는데, 정규수업이 끝나면 빵과 우유를 먹고, 방과후수업을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정규수업보다 방과후수업이 있는 날을 더 많이 기다립니다. 지금까지 흙, 돌, 나무가 놀거리였고, 모든 아이들의 유일한 취미가 ‘축구’ 일 정도로 다양한 체험이 없던 이들에게는 도화지와 크레파스가 낯설기만 합니다. 배드민턴, 배구, 피구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체능 감각과 운동 신경은 누구보다 발달되어 있습니다. 특히 탐탐반에서 작은 북을 칠 때면,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리듬감 있게 잘 치는지 깜짝 놀라곤 합니다. 배움의 기회가 제한된 이곳에서, 지속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것 또한 기적이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 일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랑과 존중의 마음이 선물한 또 다른 기적

아이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주는 것도 뿌듯하지만, 더 뿌듯한 것은 우리의 교육방식이 지역의 다른 학교와 교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산 문제로 타 학교가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저희가 아이들을 존중하며 사랑으로 대하는 태도만큼은 닮고 따라가고자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학교에서 전학 온 아이들은 한동안 눈치를 보고 긴장된 모습으로 다니곤 합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긴 고무 같은 것으로 아이들을 자주 때리고 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하나임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게 되면, 얼마 안 되어 편하게 웃는 얼굴로 바뀌게 됩니다. 마하나임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것이 소문이 나자 다른 학교의 나쁜 관행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비록 같은 프로그램이나 간식을 제공하지는 못해도 함부로 아이들을 때리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들도 알게 된 것이지요. 절대적인 교사 중심에서 아이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점이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작지만 의미있는 변화가 마을 곳곳에 일어나고 쌓이게 되면 아이들의 삶에도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해마다 전학왔거나,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보충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글씨를 쓰는 것이 익

빵과 우유를 먹고 있는 아이들



3 제가 처음 그린 작품 어때요?
4 방과후수업을 기다리는 아이들

숙해지고, 조금씩 공부에 흥미를 갖게 되는 변화를 보게 됩니다. 학교에서 진행되는 수업과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실력이 하늘 높이 솟속 향상되는 것을 기대하지는 않지만, 아이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아이들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질 새로운 기적을 가슴에 품고

새해 소망이 있다면, 마하나임초등학교와 같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갖추고, 선한 영향력을 전해줄 수 있는 중학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고학년 아이들이 졸업하면 갈 수 있는 중학교가 필요한데 이곳에는 중학교가 하나뿐이고, 그마저도 너무 열악해 대다수 아이들은 중등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건축을 앞두고 많은 고민을 했지만, 이어질 새로운 기적을 가슴에 품고 중학교 주춧돌을 놓았습니다. 이 땅에 100년, 아니 그 이상 오랫동안 굳건히 아이들의 희망과 꿈을 키워가는 그루터기와 같은 학교가 어서 속히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학교 주춧돌을 놓는 모습

기적과 같은 하루

최근에 이곳 활동가 한 명이 화장실에서 심한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차드에서 가장 큰 병원에 갔지만 CT, MRI를 찍을 수 없었습니다. 배터리를 외국에 주문했는데 6개월째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드 의료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피부적으로 느끼는 시간이었습다.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는 도중 두 번 심정지가 있었고 가까스로 CT를 촬영했으나 차드에서는 수술이 가능한 의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활동가들이 돌아가면서 함께 병원을 지키고, 여러 곳에서 보내온 후원과 응원에 힘입어 결국 한국으로 긴급 후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자를 본 병원에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한국을 떠나올 때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뒤로하고 차드로 들어왔습니다.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쇠약해지신 어머니를 두고 이곳에 왔을 때, 눈물을 흘리며 결심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두고 차드에 왔으니 이곳에서의 하루하루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마주하는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해 정말 잘해야겠다고 말입니다. 감사하게도 출발할 당시, 바람 앞의 등불 같았던 어머니의 건강이 더는 나빠지지 않고 하루하루 잘 지내고 계신다는 소식에 매일 이렇게 고백합니다.

“ 오늘 하루도 어머니가 잘 보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저는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

많은 일들 속에서 지금까지 저와 학교 아이들이 아무 일 없이 지내온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요, 기적이었다는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허락된 시간 안에 있고, 그래서 오늘 주어진 하루를 더 소중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특별히 2023년 새해에는 우리 아이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새해 소망을 안고 시작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평범한 일상을 감사함으로 가득 채워, 매일 매일 새롭고 의미 있는 날로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변화와 성장으로 희망을 채워가는 프런밋학교

추운 겨울에 움츠려있던 꽃망울들이 때가 되면 하나둘씩 피어오르듯, 생명의 계절을 만나 새싹과 같이 쑥쑥 자라나는 아이들의 즐거운 소리가 가득한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라오스 우돔싸이에 자리한 프런밋학교입니다. 배움의 즐거움과 함께함의 기쁨이 있는 곳, 더불어 성장하고 변화하는 프런밋학교 이야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유아의 꿈을 응원하는 부모님과 함께
2 후아두와 아버지

15살이면 시집을 가야 하는 소수 종족 출신인 '유아'는 벌써 결혼을 강요받을 나이지만, 고등학교 졸업뿐만 아니라 대학 진학이라는 목표를 그릴 수 있도록 부모님의 생각 또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프런밋학교가 특별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 문 제야로 전학을 온 아이들이 이곳에 오면 변화된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도움이 필요한, 소위 '문제아'라고 불리던 아이들을 상담해보면, 가정 안의 여러 가지 문제와 사춘기 시기가 맞물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라오스는 어떤 사회적 제재나 법이 없어서 학생들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것이 자유롭고, 심지어 알약으로 유통되고 있는 마약도 마음만 먹으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런밋학교는 청소년 시기에 방황하며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기숙사 생활을 권유하고, 올바른 가치관으로 운영되는 공동체 생활을 통해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숙사에는 가난한 아이들과 마

〰〰 **싸바이다(안녕하세요!)
라오스 프런밋에서 인사드립니다.** 〰〰

프런밋학교는 2017년 개교하여 6년 차를 맞는 학교입니다. 처음에는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까지 개설되었고, 어느새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가 모두 있는 학교로 성장하였습니다. 프런밋학교는 특히 가난하여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여러가지 이유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가정의 아이들에게 인재를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해 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육한 결과, 6년째 재학 중인 고등학생들은 정말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 '후아두'라는 학생은 처음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라오스의 공용어인 라오어를 몰라 자기 이름도 못쓰던 아이였지만, 지금은 우돔싸이도 경시대회에서 1등을 할 정도로 성장하고, 꿈을 향해 달려가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음에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마을 아이들이 소식을 듣고 찾아오기도 하는데, 그 아이들의 경우, 집이 너무 멀어 모두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합니다.

기숙사 정원은 30명인데, 현재 52명의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한 방에 5명 정도가 생활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지금은 7-8명의 아이들이 지내고 있어 많이 불편할 텐데도, 늘 밝게 웃으며 지내는 아이들이 참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일단 옥상에 증축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아이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기숙사 한동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프런밋학교를 처음 세울 때 고민이 많이 됐던 부분이 급식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학교급식이 너무나 익숙하지만, 급식 문화가 없는 라오스에서는 첫 시작이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개교했을 때, 첫 입학생 17명 중에서 16명은 장학생이었습니다. 급식비를 낼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고, 산에서 내려온 아이들도 있었기에 첫 시작부터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했지만 감사하게도 프렌즈에서 매월 급식비를 후원받게 되면서 지금은 밥과 두 가지 반찬 그리고 과일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6년째 점심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부터는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을 위한 저녁 급식도 시작했습니다.

학교급식 덕분에 아이들이 더 이상 끼니를 걱정하지 않고 학업에 집중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되었고, 험한 산길을 걸어 통학하는 동안 만나게 되는 여러 위험으로부터도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먹는 학교급식이 얼마나 좋은지 점심 시간 종이 울리면 급식실을 향해 달려가 줄을 서서 기다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저절로 웃음이 나온답니다.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쌀국수도 이제는 매주 월요일 점심으로 정해졌고, 과일 대신 가끔 나오는 간식(파짜기, 잡채 빵, 도넛 등)도 매우 인기 있는 메뉴입니다.

이렇게 프런밋학교는 매일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일은 단시간에 쉽게 열매를 보기 어려운,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 일이지만, 사람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우돔싸이와 라오스를 변화시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교육이기에 이 일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제 6년 차인 프런밋의 아이들이 성장하고 변화를 만들어 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일에 동참해 주신 프렌즈와 후원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라오스를 변화시키는 이 귀한 일에 저도 더욱 힘을 내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프렌즈, 그리고 여러분 모두, 쑥쑥 (힘내세요!)



3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아이들
4 즐거운 급식 시간
5 프런밋 학교 본관 모습



후원자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조사 개요

- ▶ 조사 기간 : 2022년 10월 26일 ~ 10월 31일(6일간)
- ▶ 조사 방법 : 설문 조사(구글폼 활용)
- ▶ 조사 대상 : 프렌즈 후원자 1,344명(정기 및 일시 후원자 / 핸드온 후원 및 수신 거부자 제외)

응답자 정보

- ▶ 응답자 수 : 155명(응답율 11.5%)
- ▶ 성별 : 남 23.2%, 여 76.8%
- ▶ 연령 : 40대 31%, 50대 29%, 60대 19.4%, 30대 18.1%, 20대 1.9%, 20대 미만 0.6%

프렌즈는 2022년 10월 '후원금 사용과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후원자 1,34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진행했고, 155명의 후원자가 응답해 주셨습니다. 약 11.5%의 응답률로 전체 의견을 반영할 수는 없으나, 보내주신 귀한 의견을 바탕으로 좀 더 향상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결과를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1차로 주요 결과와 적용점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함께 보내주신 건의 및 궁금점에 대해서는 지면의 한계로 담지 못하였으나 추후 홈페이지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답과 함께 보내주신 뜨거운 신뢰와 격려에 감사드리고, 부족한 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는 프렌즈가 되겠습니다.

사업후원 (단위 : %)

사업 후원 형태	▶ 용도 지정	36.2
	▶ 용도 비지정	29.5
	▶ 지정/비지정 모두	26.7
	▶ 후원 형태 모름	7.6
사업 후원 방법	▶ 정기	60.7
	▶ 일시	14.3
	▶ 정기/일시 모두	25.0
비지정 후원금 용도	▶ 국내	13.3
	▶ 해외	13.3
	▶ 국내, 해외 상관 없음	73.4
국내사업 중 희망하는 우선 사용 용도	▶ 소외계층지원사업	50.0
	▶ 아동복지사업	50.0
	▶ 국내유학성장학사업	0.0

응답자 중 결연 외 다른 사업 후원 경험이 있는 후원자 6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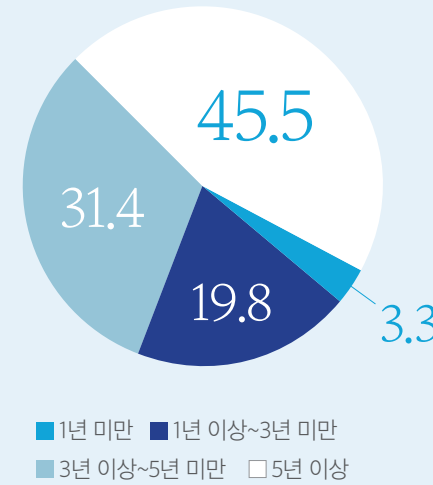
해외사업 중 희망하는 우선 사용 용도

■ 교육사업(교육기관 운영, 방과 후 프로그램, 도서 및 교육기자재, 직업훈련, 시설보강)	57.2
■ 급식사업(무료급식 및 도시락 제공)	7.1
■ 지역개발사업(우물개발, 가축분양, 주민 소득증대 등)	14.3
■ 보건의료사업(진료소 운영, 긴급환자지원, 기초위생교육 등)	7.1
■ 긴급구호사업(봉사단 파견, 식량지원, 구호물품, 시설복구)	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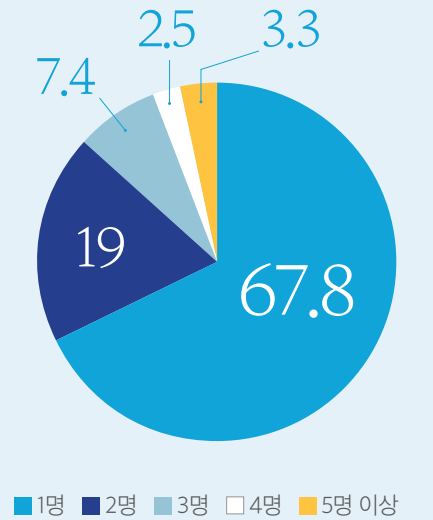
아동결연후원 (단위 : %)

응답자 중 아동결연 후원자 비중 **7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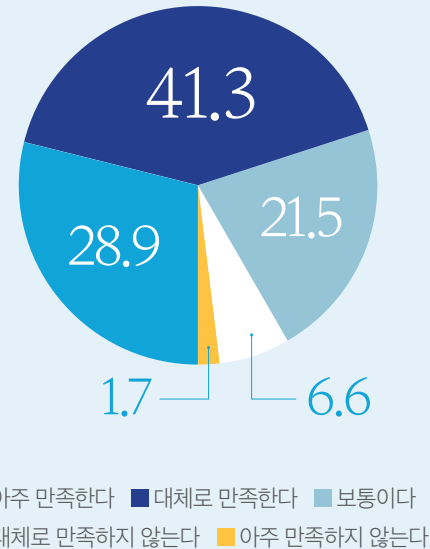
아동결연 후원 기간
(2명 이상 후원할 경우 처음 후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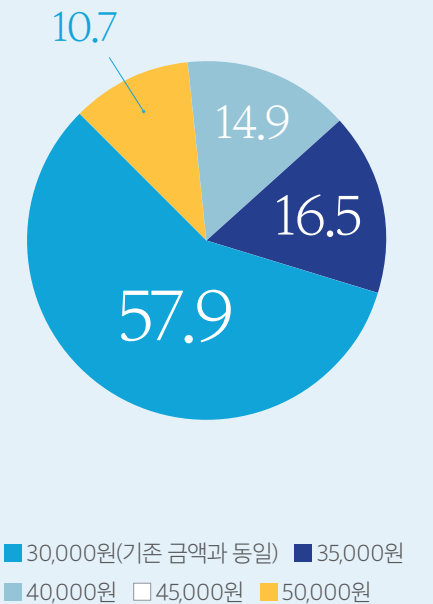
후원 아동 수



후원 아동에 대한 피드백 및 소통 만족도
(성장보고서, 성탄카드, 후원자 응대 등)



적정 후원금 (월 기준)



소식지 (단위 : %)

수령 여부	▶ 수령	83.2	내용 구성 만족도	▶ 아주 만족	19.4
	▶ 미수령	16.8		▶ 대체로 만족	60.5
수령 방법 중 선호하는 방법	▶ 현재 방식(인쇄)	57.4		▶ 보통	18.6
	▶ 온라인	42.6		▶ 대체로 불만족	1.5
선호하는 발행 횟수	▶ 연 2회	67.4		▶ 아주 불만족	0.0
	▶ 연 4회	27.1			
	▶ 기타	5.5			

후원 관리 (단위 : %)

후원자 모임 참석 의향

▶ 있다	37.4
▶ 없다	6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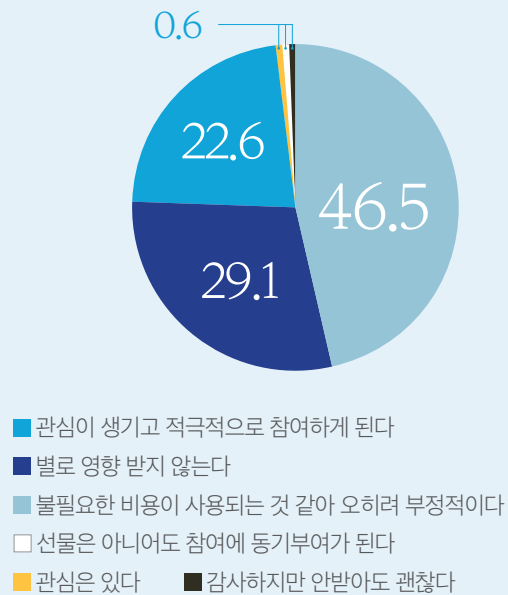
고액기부자 예우 및 후원자 모임

▶ 필요하다	21.3
▶ 필요없다	40.6
▶ 모르겠다	38.1

후원용 키오스크(디지털 단말기) 설치 시 활용 의향

▶ 있다	48.4
▶ 없다	51.6

모금 시 후원자에게 각종 리워드(후원 감사 선물) 제공시 반응



후원자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부합하는 후원 관리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설문 조사에 참여해 주신 후원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자주 후원자님의 의견을 듣고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결과 분석 및 적용점

아동결연

환율 및 물가 인상 등에 따른 어려움으로 후원금 증액을 검토했으나, 응답자의 57.9%가 현재 수준으로 유지(월 3만원)하는 것에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42.1%의 응답자는 후원금 증액에 찬성하고, 증액의 필요성에도 공감해 주신만큼, 시간을 두고 적절한 인상 시기와 증액의 정도를 다시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후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사업장 필요에 부합하는 가장 합리적인 수준의 후원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사업장 소통과 추가 검토 과정을 거치고 응답에 참여하지 못한 후원자분들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사업후원

지정 후원을 제외하고, 용도 지정 없이 사업 전반에 후원하는 비지정사업후원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를 원하는지 묻는 항목에서 일단 '국내외 상관없다'는 의견이 73.4%로 가장 많았고, 국내 또는 해외를 지정하는 경우는 각각 13.3%로 동일했습니다. 후원자들은 해외사업 못지않게 국내사업에도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국내외 구분에 우선순위가 있기보다는 꼭 필요한 곳에, 투명하게 쓰이냐에 대한 관심이 더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해외사업의 우선순위는 교육사업이 57.1%로 가장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국내사업의 우선순위는 소외계층지원사업과 아동복지사업이 각각 50%로 동일했습니다. 현재 해외사업 중에서 프렌즈가 가장 집중하는 분야가 교육이고 그 다음으로 호응을 얻은 지역개발과 긴급구호에도 많은 재정을 투입하는 만큼, 후원자 뜻에 부합하는 사업비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비지정사업비 지출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급식사업과 국내유학생장학사업의 경우 후원자의 호응이 낮거나 없어서(급식사업 7.1%, 국내유학생장학사업 0%)이 분야에 대한 집행 비중을 후원자의 뜻에 맞게 순차적으로 조정, 축소하거나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인의 비지정후원이 아닌 다른 후원으로 충당될 수 있게 준비하고자 합니다.

다만, 해당 설문 항목이 선택 사항으로 다수의 응답을 반영한

것이 아니고, 지원 대상자들의 상황도 고려해야 하므로 급격한 사업 중단이나 축소는 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소식지

소식지 내용 구성과 발행 빈도, 수령 방식 등 소식지 전반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현재의 방식을 선호하셨고, 특히 내용 구성 만족도에 있어서는 약 80%의 응답자가 아주 만족 또는 대체로 만족한다는 의견을 주셔서 현재와 같은 구성과 발행 빈도, 수령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다만, 온라인 뉴스레터 수신에 대한 긍정 의견도 42.6%로 많았기 때문에, 더 많은 소통을 원하시는 후원자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필요 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온라인 뉴스레터를 통한 결연 및 사업 피드백 횟수를 점진적으로 높이는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후원관리

일반적으로 프렌즈 후원자들께서는 타 기관에서 많이 활용되는 후원자 예우와 리워드에 대한 반응과는 매우 다른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후원 리워드 제공에 대해서는 관심이 생기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긍정 의견이 22.6%에 그친 반면,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의견이 29%, 불필요한 비용이 사용되는 것 같아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는 의견이 46.5%로 부정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후 후원 개발시 후원자 리워드 제공에는 보다 더 신중한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후원자 모임 참석 희망, 리워드 제공 및 고액 기부자 예우 필요성에 일관되게 긍정 의견을 주시는 경우도 평균 30%로 적지 않기 때문에, 후원자 특성과 선호에 맞는 세분화된 관리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30~60명이 참여하는 소규모 후원자 모임을 2회 진행한 바 있었는데,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대규모 행사보다는 보다 친밀한 분위기 속에서 소통하고 후원의 보람과 의미를 나눌 수 있는 프렌즈만의 후원자 모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명의 물을 나누는 사람들

안암제일교회 후원 스토리

띠링띠링~ 전화왔어요~

2020년 8월 어느 날, 프렌즈 사무실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다니시는 교회가 있는데, 성도들이 아프리카에 우물을 후원하고 싶어서 몇 년 동안 후원금을 모아 오셨대요. 어디로 후원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계셔서 제가 프렌즈를 추천했어요.”

그렇게 만나게 된 교회가 바로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위치한 ‘안암제일교회(담임목사 김명환)’였습니다. 담임목사님과 담당위원회를 통해 어떻게 교회와 성도들이 아프리카 우물 후원을 품고 기도하고 있었는지 듣게 되니, 이 일이 새삼 더 중요하고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몇 가지 점검을 마치고, 우물 개발이 필요한 후보지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깨끗한 물을 얻는다는 것은...

우물은 나라마다, 또 같은 나라 안에서도 지역마다 여건이 달라 개발 방법과 비용도 많이 달라집니다. 어떤 곳은 2~3백만 원으로 가능하지만, 어떤 곳은 그 비용의 5~10배가 들기도 하는데, 주로 암반이 많을수록 큰 비용이 듭니다. 시추한다고 해서 다 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실패하다 어렵게 물길을 찾기도 하며, 끝내 실패하기도 합니다. 개발 못지않게 ‘사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힘들게 개발하고도 관리가 안 돼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물 개발은 고려할 것들이 많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종합하여 결정된 곳이 바로 ‘세네갈 사업장’이었습니다. 세네갈 사업장은 이 후원으로 북부 칠레부바카르 마을에 우물 개발과 공동텃밭 조성을 시작했고, 오랫동안 물 문제로 고통받던 주민들은 깨끗한 물과 함께 푸른 채소와 과일들을 수확하는 기쁨도 얻게 되었습니다(관련 기사, 프렌즈 소식지 Vol.13 참고).

2022년 4월, 다시 후원하고 싶어요~

시간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교회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세네갈에서 보내주신 우물 영상을 예배 시간에 함께 보았는데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교회로 계속 우물 후원 문의가 오고,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아무래도 다시 후보 지역을 추천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아프리카를 원하시는지요?”

“네, 아프리카를 희망해요. 총 3곳의 우물을 지원하고 싶은데, 2곳은 꼭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면 좋겠고, 다른 1곳은 아프리카가 아닌 다른 지역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후원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시간을 두고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어요.”

마침 해외 사업장 여러 곳에서 우물 개발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던 터라, 그 전화가 얼마나 기쁘고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인도네시아, 차드, 그리고 마지막 주자는 우간다

2022년 8월, 가장 먼저 인도네시아 숨바섬에 있는 ‘마인다올레’ 마을에서 우물 시추가 시작됐습니다. 우물은 350여 가정이 살아가는 이 마을의 오래된 숙원이었습니다. 여러 번 시추했으나



물이 나오지 않아 애를 태우다가 11월, 마침내 물길을 찾아냈습니다. 깨끗한 물이 터져 나오던 그 날, 마을은 온통 넘치는 기쁨과 환호성으로 가득했습니다.

차드도 우물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차드는 다른 곳과는 다른 방식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비교적 물길 찾는 것이 수월한 편이고 비용도 적게 들어, 3곳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듀크라 마을 2개 학교(레볼라시옹 초등학교, 라푸터까드르 유치원, 초등학교)와 가시마을 1개 학교(라누벨비지옹 초, 중학교)에 우물을 설치했습니다. 3개의 우물로 약 1,570명의 아동과 청소년이 깨끗한 물을 사용하게 되었고, 우물 기증 시 대상 학교에서 1명의 장학금도 함께 전달하는 차드 사업장의 방식을 따라 장학금도 전달되었습니다. 폭우로 마을 간 이동이 쉽지 않았고, 지역 답사와 공사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감사하게도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batong을 받은 곳은 우간다입니다. 특히 물 사정이 나쁜 북부 네비 지역을 대상으로 후보지를 탐색했습니다. 여러 번의 지역 답사를 거치고 마을위원회와 의견을 조율한 끝에 최종 후보지 1곳이 확정되었고, 현재 업체 선정을 거쳐 개발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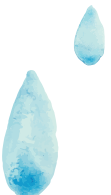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우물 후원 명판에는 후원자명과 함께 “생명의 물 프로젝트-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니”라는 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이라는 건 세상에 없겠지만, 생명의 물이 나누어지는 현장을 함께 하는 우리의 마음만큼은 이들이 다시 갈증 나거나 목마르지 않길 바라는, 그 마음이 담겨있는 것이겠지요. 나눔을 위해 기다림을 선택했던 사람들,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도 생명의 물이 우리 이웃의 삶으로 쉬지 않고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년간 이 생명의 물을 나누기 위해 기다리고 준비해오셨던 안암제일교회 성도들의 깊은 사랑과 후원에 우리 이웃들을 대신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 말을 다시 떠올려봅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2022 프렌즈 하반기 News



우간다 카짐바 대주교 등 COU 내빈 방문

7월 22일 우간다 COU(Church of Uganda)의 스티븐 사무엘 카짐바 대주교(The Most Rev. Dr. Stephen Samuel, Kaziimba Mugalu)를 비롯한 6명의 방문단(윌리엄 행정 수석, 존슨 수행비서, 카코자 교육국장, 리차드 어린이 및 청년 담당자, 알렉스 우간다 프로젝트 코디네이터)가 한국 프렌즈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프렌즈 기관 및 활동 소개와 함께 향후 우간다에서 5년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을 나누고, 상호 협력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프렌즈는 최근 우간다에서 INGO 등록을 마쳤으며, 앞으로 청년과 주요 리더들을 위한 각종 훈련 프로그램과 직업훈련, 아동 및 청소년 교육, 보건 의료, 식수 및 지역사회 개발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히 활동할 예정입니다.



DHL & Formula E Together Green Award, 서울 수상자로 선정

8월 14일, DHL과 친환경 글로벌 전기자동차 경주 대회인 Formula E가 개최하는 <Together Green Award>에서 프렌즈(손모아 과장)가 서울 히어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어워즈는 Formula E 대회가 열리는 개최국 지역에서 환경, 사회, 경제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숨은 영웅들을 찾아 격려하고, 서울에서 열린 Formula E 시즌 피날레 참석과 함께 각국에서 선정된 글로벌 영웅들과 특별한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획된 행사입니다. 프렌즈와 함께 2년 동안 해외 아동을 위한 임직원봉사활동 등 활발한 기업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온 DHL KOREA는 1,311명의 임직원들이 프렌즈 봉사활동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뜻깊은 수상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구촌 곳곳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프렌즈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프렌즈-클레버스X기부캠페인 '우리들의 영원한 친구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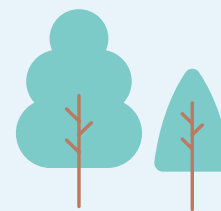
8월 17일부터 9월 7일까지 '우리들의 영원한 친구 찾기(우.영.우.)' 기부캠페인이 진행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캠페인 기간에 참여해주신 후원자분들 중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분들에게는 프렌즈 캐릭터로 예쁘게 디자인된 NFT를 리워드 제공했습니다. 프렌즈에서 처음 발행된 이 NFT는 2022년 3월 프렌즈와 업무 협약을 맺은 알만컴퍼니(회장 구교성)의 협력으로 제작되었으며, 알만컴퍼니의 NFT 마켓플레이스인 클레버스X를 통해 여러 형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특별한 리워드가 될 것입니다. 기부캠페인에 참여해주신 후원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단법인 프렌즈 X CLEBUS 기부 캠페인
우리들의 영원한 친구(우) 찾기
 기부도 하고 NFT도 받고!
 프렌즈의 우.영.우가 되어주세요!
 캠페인 기간 2022.08.17 ~ 09.07
 자세히 보기



'당신에게 필요한 색다른 하루' 북콘서트

9월 23일 서울NPO지원센터 대강당(품다)에서 '당신에게 필요한 색다른 하루' 북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도서 후원과 재능기부로 무료 특강을 맡아준 한국컬러테라피협회 김규리 회장(공동 저자 이진미 부회장)의 시간 출간을 기념하여 열린 북콘서트에서, 참가자들은 컬러를 통해 자신의 심리와 성향을 파악하고 서로에게 필요한 힐링의 언어를 전해주는, 훈훈하면서도 '색다른'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저자특강을 맡은 김규리 회장이 속해 있는 한국컬러테라피협회는 2021년부터 프렌즈와 협약을 맺고,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위한 심리적 돌봄과 상담을 제공하는 등 심리적 약자를 위한 공익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성시문화재단과 함께한 핸즈온 봉사활동

11월 7일, 화성시문화재단 임직원분들과 프렌즈 필통 만들기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의 기회가 적었기에 더욱 반가웠던 시간이었습니다. 프렌즈에 대한 소개와 핸즈온 봉사활동 취지를 나누었고, 본격적인 활동에서는 봉사자들이 절대 만만치 않은 바느질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꼼꼼한 작업이 필요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어려운 부분을 서로 도와주면서 특별하고 예쁜 모양으로 만드는 금손인 분도 만나고, 서툴지만 정성껏 노력해주는 분들을 직접 마주할 수 있어서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바쁜 시간을 내어 함께 활동해주신 화성시문화재단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두레줄기학교 우크라이나 난민 후원

12월 7일, 남양주에 있는 '두레줄기학교'에서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 4학년 요셉반 학생들이 열심히 준비한 후원금을 프렌즈에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달식에 앞서 다수의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머물고 있는 우크라이나-폴란드 접경 지역을 다녀온 김정섭 이사님의 이야기를 통해 난민들이 처한 아픔과 힘든 현실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후로 약 1년 동안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후원금을 모으기 위해 노력했다는 이 기특한 친구들은 때로 거리에서 후원 캠페인을 벌이기도 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당일 끝없이 이어지던 수준 높은 질문만 봐도 그동안 친구들이 보인 관심과 열정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귀한 사랑이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위로와 힘이 되어 줄 것이라 믿습니다.

지구촌에 희망을 주는

좋은친구 FRIENDS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 189 금성빌딩 2층

Tel 02-483-5007 Fax 02-6007-9857 E-mail friends@hifriends.or.kr

www.hifriends.or.kr



후원계좌 안내

예금주 사단법인 프렌즈

후원계좌 국민은행 777501-04-111940, 신한은행 100-023-015009



FRIENDS

사단법인프렌즈